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의 발걸음은 오롯이 '부천 시민'에게 맞춰져 있다. 부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전담하고, 낡고 위험한 시설의 보수·유지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땀방울을 흘려왔다. 그런 시설공단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 2월 14일, 관내 전통시장인 원미시장과 자매결연을 한 것이 그 시작이다.

오직 부천 시민들을 위해 달린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도시가꾸는 마이다스의 손

꾸준한 관심, 열매 맺어

사실 시설공단과 원미시장의 자매결연은 '필연적 인연'의 결과물이다.

시설공단은 오래전부터 서민,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왔다. 자매결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포상이나 생일 축하 선물, 각종 표창의 부상으로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해왔던 것. 때문에 시설공단 임직원들은 이번 자매결연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현진 시설공단 기획팀 홍보 담당은 "이번 자매결연은 확실한 '약속'을 전달한 것일 뿐, 원미시장과 우리의 인연은 예전부터 두터웠다"고 설명하며 "습관이라고 할까. 이제는 '장을 보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곳은 당연히 원미시장'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시민들의 웃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일까. 시설공단은 오래전부터 각종 행사와 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회식까지 원미시장에서 실시해왔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방문을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원미시장을 찾는다. 시설공단 직원들이 시장을 찾을 때면 상인들은 마치 아들딸이 찾아온 것처럼 농담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리곤 한다. 원미시장을 찾는 시설공단 직원들의 음식 그릇이 유독 푸짐한 이유다.

고장 난 전기, 보일러? 내 전공!

부천시 시민들은 겨울철, 보일러 동파나 전기가 나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시설공단의 봉사 동호회인 '희망 나누미'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독거노인이나



1,2. 시설공단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미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3,4. 사랑의 연탄 나누기, 아나바다 운동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공단의 발걸음은 바쁘다.

자매결연 이전에 이미 든든한 단골로 오랜 인연 원미시장 상인들도 아들딸 대하듯 토닥토닥

소년·소녀 가장, 소외 계층 가정 등을 점검·보수해주며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시설공단 사회 공헌 담당자는 "자발적인 동호회 형식이지만 거의 100%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천 시민들이 추위를 느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시설공단은 국제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협약해 결식아동 돕기, 해외 구호 활동 성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어 생긴 수익금을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1사 1촌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농산물 구매와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 장애우 동반 산행과 사랑의 헌혈 등 시설공단의 하루는 바쁘기 그지없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

시설공단 박명호 이사장은 "거창하고 대단하지는 않아도, 우리네 이웃이 환한 미소로 '고맙다'라는 한 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시설공단이 가장 바쁘다는 겨울이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하다. 봄을 맞이해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와 학교 폭력 방지 운동을 준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각오하고 있는 것.

시설공단은 그 업무의 특성상,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시민들의 아프고 불편한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다. 시설공단의 발걸음, 발걸음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다.

하성원 기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원미시장

우리 자매예요 ♥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14일, 원미시장과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그전부터 이미 원미시장을 자주 찾았다. 어려움을 겪는 부천시 이웃들을 위한 도움에 임직원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모처럼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시설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원미시장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